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22(금) ~ 2023.09.28(목)

제공일시 2023 10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22(금) ~ 2023.09.28(목)

제공일시 2023 10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우리도 반도체 키운다" EU 칩스법 발효...美·中과 테크 삼국지

-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에, 유럽도 '칩스법'을 통해 본격 가세했음
-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신규 반도체법을 발효했다고 발표했음
-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유럽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를 계획한 곳도 적지 않음
- 미국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기존 아일랜드 공장에도 45억 유로를 투자해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임
- EU는 유럽판 '칩스법'을 통해, 파운드리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도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음

(뉴스1, 2023.09.22) 김민성 기자

2. 유럽 車업계 압박 통했나...EU, 새 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 유럽연합(EU)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 7'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EU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배기가스 규제 '유로 7' 중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와 밴의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음
- 이탈리아와 체코,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엄격한 환경규제로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 EU의 자동차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유로 7에 반대해왔음
- 유로 7의 기준대로라면 내연기관차는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해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임
- 이사회의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한국경제, 2023.09.26) 노유정 기자

3. 英, 화석연료 차량 판매 5년 더...기후대책 속도 왜 늦춰나?

- 영국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속도 조절에 나섰다
-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 목표는 유지하지만, 가계가 생계비 부담으로 힘든 상황에 맞춰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임
- 리시 수석 영국 총리는 휘발유·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룬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휘발유·경유차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음
- 영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 기아, 포드 등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ESG경제, 2023.09.22) 홍수인 기자

1. 전기차 폐배터리 ESS로 '재사용' 시 재활용업 허가 쉬워져

-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에 진출도 허용됨
-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이 없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음
- 또, 세계 물 시장에서 하수도 분야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 분야 전문성을 지닌 수자원공사의 외국 하수도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음
-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재는 행정처분(영업정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함께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행정처분 후 재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음

(연합뉴스, 2023.09.22) 이재영 기자

(뉴스스, 2023.09.22) 김혜경 기자

(데일리안, 2023.09.22) 배균득 기자

2. 10월부터 EU에 탄소배출량 의무보고...무협 "배출량 측정체계 구축해야"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음
- 전환 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음

(아시아경제, 2023.09.26) 한예주 기자

(한국무역신문, 2023.09.26) 김민지 기자

3. 한전, 빅데이터·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 개최...전력데이터 민간 제공 확대

- 한국전력공사가 빅데이터·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새 에너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
- 에너지신사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 개 35기관 약 82명 데이터 수요자에게 전력데이터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전력데이터 개방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
- 한전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구역 소개·이용방법, 전력데이터서비스(EDS) 마켓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서비스 개발과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사례를 공유했음
- 주요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KAIST의 '안심구역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의 전력사용량 절감의 효과성과 지속성 분석',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의 'EDS 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전력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소개했음

(전자신문, 2023.09.22) 변상근 기자

1. 美최대제철사, 핵융합에 투자…탄소배출 없는 철강제조 도전

- 미국 최대 제철업체가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으로 탄소배출 '제로'(0)의 철강생산에 도전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제철업체 뉴코(Nucor)가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음
- 합작 프로젝트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뉴코의 제철단지에 500MW(메가와트) 용량의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임
-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는 철강업의 특성상, 합작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제철업계에도 혁명적 변화가 발생할 전망도 나왔음

(연합뉴스, 2023.09.28) 고일환 기자

2. "테슬라, 태국 전기차공장 설립 검토…구글 등 7조원투자 전망"

-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 약 7조원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밝혔음
-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전날 귀국한 세타 총리는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향후 수년간 최소 50억달러(6조6천600억원)를 투자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테슬라는 태국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음
- 다만, 그는 기업별 투자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연합뉴스, 2023.09.25) 강종훈 기자

3. 탄소 배출권 거래소 인니서 본격 가동…1t당 6090원

- 인도네시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했음
- 또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지난 2월 PLN에 전력을 공급하는 99개 석탄 화력 발전소들에 총 2천만t의 탄소 배출 한도를 할당했음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개장과 함께 13건 약 46만t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으며, 거래 가격은 1t당 평균 6만9600루피아(약 6090원)였음
- 이날 팔린 탄소배출권은 모두 국영 에너지 회사 페르타미나가 소유한 북부 술라웨시의 지열 발전소에서 나왔음
- PLN은 탄소 배출 한도를 적용받는 발전소가 PLN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발전 용량이 100MW(메가와트) 이상인 석탄 화력발전소만이라면서, 앞으로는 PLN과 연결되지 않은 발전소와 발전 용량이 더 적은 석탄 화력 발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스카이데일리, 2023.09.26) 박병현 기자

(글로벌비즈, 2023.09.26) 이진중 기자

1. LG엔솔, 인도 철강회사 JSW와 전기차 배터리 현지 생산 협의

-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 철강회사 JSW그룹과 인도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현지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JSW는 인도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을 위한 배터리 셀 제조 파트너십을 LG엔솔에 제안했으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음
- JSW는 LG엔솔 외에도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 등 다양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에 따르면, JSW는 자국 브랜드 전기차 생산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중국 립 모터(Leap Motor)와 전기차 생산기술 이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 모터, 배터리 팩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투데일리, 2023.09.22) 이상원 기자

2. SK에코플랜트, 어센드 엘리먼트와 폐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테스(TES)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트'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전처리 공장 건설에 돌입한다고 밝혔음
- 이번 합작법인은 미국 내 첫 한·미 합작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 지분율은 SK에코플랜트 64%, 테스 11%, 어센드 엘리먼트 25%임
- 새로 건설되는 전처리 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인 스크랩과 수거된 폐배터리 등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파쇄하고, 배터리 원료 추출 전 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할 예정임
- SK에코플랜트·테스·어센드 엘리먼트 3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 및 전처리 공장 건설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기반이 될 전처리 설비를 확보했음

(미디어펜, 2023.09.26) 김준희 기자

3. HD현대 '메탄을 연료 힘센엔진' 日 조선소에 첫 공급

- HD현대가 일본 조선소에 처음으로 '메탄을 연료'를 활용한 힘센(HiMSEN) 엔진을 공급했음
-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는 최근 일본 츠네이시 조선(Tsuneishi Shipbuilding)과 메탄을 이종연료 힘센엔진(8H32DF-LM)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이는 5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적용될 총 4척분 16대 규모로, 일본 조선소에서 주문한 첫 메탄을 활용한 힘센엔진임
- 이에 더해 HD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43척의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여 메탄을 추진선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더구루, 2023.09.22) 김소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9.22(금) ~ 2023.09.28(목)

제공일시 2023 10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맥도날드, 미 농무부와 장기파트너십...스마트농업 이니셔티브 '에임포클라이밋' 출범

(임팩트은, 2023.09.26) 최동훈 기자

- 지난주 열린 뉴욕 콩코르디아 연례 정상회담(Concordia Annual Summit)에서 전문가들이 "식량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농업 관행을 재설계하기 위한 투자는 아직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며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리플 펀딧(Triple Pundit)이 보도했음
- 기후 스마트 농업은 오는 11월 열릴 UN 기후정상회의 COP28의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뉴욕에서 지속가능성 개발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 검토를 받은 바 있음
-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의 식품 및 담수 담당자인 마이클 도안은 "현재 식품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번 세기 중반까지 가장 큰 배출원이 될 것"이라 전했음
- 도안은 식량 생산성의 20% 감소와 2000년 이후 전 세계 식량 가격의 50% 상승을 지적하며, "우리는 더 나은 씨앗, 더 나은 품종뿐만 아니라 자연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음
- 도안은 네브래스카주의 쇠고기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 농무부와 맥도날드가 맺은 장기 파트너십을 언급했음
- 지난 2020년 맥도날드는 국제자연보호협회, 타겟(Target), 카길(Cargil)과 함께 네브래스카주의 토양 건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부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5년간 850만 달러(약 113억 6000만 원)를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도안은 미국 농무부의 수석 과학자인 제이콥스 영과 함께 식량과 농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환영한 한편,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제이콥스 영은 "오늘날 세계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며 2050년까지 이 수는 2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이콥스 영은 "재생 농업에 대한 수 세기에 걸친 데이터가 농작물을 위한 무경운 농업과 바이오매스 발효 등의 기술을 통해 물을 적게 사용하고, 토양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음. 또한 그녀는 "이러한 기술이 상업화되고 농부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음
- 한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 기후 회담에 앞서, 53개국과 500개 기업 및 파트너들은 2025년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출범한 기후 스마트 농업 이니셔티브인 '에임 포 클라이밋(Aim For Climate)'에 지난 5월 130달러(약 17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음
- 당시 톰 빌삭 미 농무부 장관은 "기후 변화는 모든 나라의 농업 관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콩코르디아 연례 정상회담의 사회를 맡은 맥도날드의 존 배너 최고 임팩트 책임자(CIO)는 "이번 주 많은 대화에서 명확해진 것 중 하나는 농업 부문이 기후 금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것"이라 전했음
- 그는 "3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사이의 기후 자금 조달에서 농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3%에서 6%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는 기후 스마트 농업의 이점을 알고, 전 세계 인구를 먹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후 스마트 농업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음